



최강희 감독

## 최강희호 1년 ... 돌고 돌아 '뺑 축구'

# 불안하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호주와의 평가전을 마지막으로 1년 일정을 모두 마쳤다.

대표팀은 1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호주와의 경기에서 전반 11분 이동국의 골로 선취점을 가져왔지만, 전반 43분 니키타 루카비치야에게 동점골을 내준 뒤 후반 42분 로버트 콘스워이트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거둔 무패행진을 4경기(3승1무)에서 마감하면서 역대전적에서도 6승9무8패로 끌려갔다.

호주 평가전을 끝으로 올해 A매치 일정을 모두 끝낸 최강희 호에 대한 공통된 평가는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불안 해소를 목표로 출범했으나 제자리 향해를 했다는 시선도 있다. 최강희호는 최근 세 차례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고 월드컵 최종예선도 혼전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다.

◇불안한 월드컵 본선 경쟁 = 한국은 2014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승

점 7을 기록해 우즈베키스탄(8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란, 카타르와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 차에서는 앞서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타르가 한 경기 더 치른 데 따른 결과이지만 혼전 양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조 3위로 내려앉아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몰리거나 본선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B조 선두를 굳히며 사실상 본선 진출을 확정할 사실과 비교하면 실적이 뒤처진다.

한국은 내년 3월 카타르와 홈에서 5차전을 일단 '올인'해야 한다.

◇하필이면 고비에 싯맛 = 최강희 감독이 부임한 이후 대표팀이 기록한 전적은 5승1무3패다. 월드컵 예선만 따지면 3승1무1패다.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볼 때 불안한 구석이 적지 않게 포착된다.

약체에 강하고 강호에 약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가 꺾이려거나 환골이 좋지 않을 때, 우위를 굳힐 기회가 왔을 때 결과가 나빠지는 것이다.

문제는 최종예선의 최대 고비인 우즈베

호주 1.5군에 역전패 연이은 졸전에 위기감 월드컵 최종예선도 우즈베키에 밀려 2위로

키스탄, 이란과의 원정 3, 4차전이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는 측면이 뚫리는 허점을 노출하며 2-2로 비겼고,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골 결정력 부족과 수비 라인 불안에 발목이 잡혀 0-1로 패했다.

◇희생 많지만 제자리걸음 = 조광래 전임 감독은 약체 레바논, 속적 일본에 진탕에 경질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조 감독의 지도력으로는 월드컵 본선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강희 감독은 감독직을 고사하다가 최종예선이 끝나면 물러나겠다는 조건을 달고 지휘봉을 건네받았다.

그가 밝힌 목표나 비전, 철학은 '이기는 축구'였다.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그때그때 승리의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는 설명이었다.

A대표팀이 추구할 공격적 스타일, 예선부터 추진하는 월드컵 본선에 대한 준비 등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사람마다 중도 교체로 희색했다.

최 감독은 최종예선 1, 2차전 선전으로 여유가 생기자 3차전부터 본선 준비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소폭적인 세대교체나

##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중간순위

순위	팀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우즈베키스탄	2	2	1	+1	8
2	한국	2	1	1	+5	7
3	이란	2	1	2	0	7
4	카타르	2	1	2	-2	7
5	레바논	1	1	3	-4	4

### 한국팀 경기일정

1차전(원정): 2012.6.9	대 카타르전(1:4 승)
2차전(홈): 6.12	대 레바논전(3:0 승)
3차전(원정): 9.11	대 우즈베키(2:2 무)
4차전(원정): 10.16	대 이란전(0:1 패)
5차전(홈): 2013.3.26	대 카타르전
6차전(원정): 6.4	대 레바논전
7차전(홈): 6.11	대 우즈베키스탄전
8차전(홈): 6.18	대 이란전

연말뉴스

자료/FFA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 밀려가 잡힌 뒤 계획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란,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새로운 시도는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왔고 '이기는 축구'마저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수인계 없는 사람탑 교체의 한계를 드러냈다.

최 감독은 본선 준비나 세대교체 등을 차치하고 내년 3월에 열리는 카타르와의 최종예선 5차전에서 '이기는 축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최근 세 차례 졸전 때문에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면서 최강희호는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문 셈이 되고 말았다. /연말뉴스

## 이라크와 우승 다툼

19세 이하 아시아축구 내일 결승

한국 19세 이하(U-19)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2012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4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 칼리마의 에미리츠 경기장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에서 3-1로 이겼다.

후반 6분 강상우(경희대)의 선제골과 후반 16분 문창진(포항)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승기를 잡았고, 후반 36분 강상우의 추가골을 더해 승리에 쾌거를 박았다.

결승에 선착한 한국은 2004년 말레이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과 대회 통산 12번째 우승을 눈앞에 뒀다. 한국은 이라크와 한국시간 17일 오후 9시45분 우승컵을 놓고 대결한다.

한국은 침착하고 끈질기게 상대 골문을 두드린 끝에 우즈베키스탄을 무너뜨렸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흐름을 조금씩 끌어왔고 오래지 않아 첫 골을 터트렸다. 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우주성(중앙대)이 헤딩으로 올린 공을 강상우가 과감한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했다.

행운이 따른 선제골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한국은 10분 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다. 후반 16분 오른쪽 측면으로 돌파하던 강상우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문창진이 이를 놓치지 않고 왼발 파넬라 키으로 여유 있게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후반 21분 한국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을 공격수 이고르 세르게예프가 놓치지 않고 오른발 터닝슛을 때려 우즈베키스탄이 한 골을 만회했다. 하지만 후반 32분 김선우(울산대)가 찬 코너킥이 동료의 머리를 맞고 흐르자 강상우가 강력한 왼발 발리슛으로 추가골을 뽑아냈다. 이 골로 승기를 굳힌 한국은 마지막까지 우즈베키스탄의 파상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 두 골 차 승리를 완성했다. /연말뉴스

이청용 "내 몸 상태 80%"

블랙폴진 2호골로 자신감



광주 FC 최민희 감독이 지난 11일 오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강원FC의 경기에서 선취골을 뽑은 이승기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이승기는 14일 호주와의 평가전에서도 이동국의 선제골에 도움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연말뉴스

했다.

A매치 첫 공격포인트도 기록했다. 이승기는 14일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왼쪽 날개로 선발로 출전해 국가대표 공격수 이동국의 발에 골을 가져다주며 한국의 선제골을 합

작했다.

성남은 외국인 3인방의 활약이 매섭다. 자엘이 최전방을 책임지는 가운데 레이나와 에벨론이 폭넓은 움직임과 패스, 돌파로 공격에 물꼬를 튼다. 11골로 팀내 최다골을 기

록하고 있는 에벨론은 그동안 광주전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했다.

광주가 이승기를 앞세워 에벨론의 화력에 맞설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승기야, 광주를 구해줘”

K리그 강등위기 광주FC

내일 성남 무조건 이겨야

A매치 첫 공격포인트 이승기, 위기의 광주 구할까?

'강등 직벽'에 서있는 광주 FC가 17일 오후 3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일화와의 K리그 4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강원과의 39라운드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2점차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부 잔류를 위해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필사적인 승부다.

광주는 지난달 21일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17개의 유효슈팅 포함, 33개의 슈팅을 주고 받는 공방전 끝에 2-3으로 패했다.

광주가 골을 넣으면 성남이 추격했다. 박기동-레이-이승기-임종은이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시키며 2-2를 만들었다.

승부는 경기 종료를 앞둔 후반 추가시간 의외의 곳에서 갈렸다. 광주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골문을 지키지 못한 광주는 통탄의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 이후 광주와 성남은 모두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의 상승세 속에 상주를 제외하고 최하위까지 내려앉은 광주는 1부리그 마지막 희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승리는 없지만 공격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성남은 강등 걱정에서 벗어났지만 승리에 목마르다.

공격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광주와 성남은 미드필더 자원이 든든하다.

광주는 박기동, 김동섭, 복이 등 장신의 선수들을 전방에 세워 제공권을 장악한 뒤 이승기, 안성남, 주양파울로 등 발 빠른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패스와 돌파로 공격력을 극대화한다.

특히 국가대표 이승기는 광주 공격의 시작점이자 핵심이다. 성남과의 5번의 맞대결에서 이승기는 3골을 홀로 책임졌다. 1도움도 기록하는 등 성남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36라운드 경기에서는 세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으며 국가대표급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최근 움직임도 절정에 올랐다. 성남전 이후 치른 인천·강원과의 경기에서 모두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인천전에서 환상의 코너킥으로 이용의 프로데뷔 골을 도운 이승기는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본능적인 골감각으로 선제골을 터트

**홍스페이스 모던가구 & 이태리가구 모던가구 런칭 30% 특별가 판매, 혼수가구 환영!**

78만원

4인셋 98만원

4인셋 175만원

2+2 198만원

**홍스페이스** SPACE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 1899-0240  
 www.hong79.com(홍천구닷컴) NAVER 홍스페이스 검색